

2024년 12월 1일(주일) 제1711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의 절기와 행사를 정하여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제정된 것이 교회력(敎會曆)입니다. 이 교회력은 대림절(待臨節 Advent)로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에 해당되며 매년 11월 30일과 가장 가까운 주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금년은 12월 1일,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대망하던 구약성경의 예언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약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강단 색깔은 절제와 경건과 준비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대림절은 강림절(降臨節) 또는 대강절(待降節)이라고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실 주님을 조용히 묵상하는 기간이 되도록 합시다.

2025년에 바뀌는 것들

1. 예배 찬송

주일예배 찬송 : 19장(1, 2, 3절 4개월씩)

송영 : 2장으로 변경

2. 스테반회와 권사회 이분화

스테반회와 권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5년부터 이분화됩니다.

스테반회는 35세-55세까지 제1스테반회로, 56세-70세까지는 제2스테반회로, 권사회는 규정집 제5항 18조에 의거 50세-60세까지를 제1권사회로, 61세-70세까지를 제2권사회로 환원합니다.

3. 교회학교 예배시간 변경

유아부부터 초등부까지 교회학교 예배 시작 시간이 10시 30분으로 조정됩니다. 그동안 예배 시작 시간의 상이함으로 인한 불편이 사라지고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됩니다.

4. 성경암송은 교구위원회 주관으로 운영

지금까지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던 성경암송 대회를 2025년부터는 교구위원회가 주관합니다.

5. 찬양대 대장은 안수집사로 임명

지금까지 장로가 담당하던 찬양대 대장은 2025년부터 안수집사로 임명합니다.

6. 교구찬양대회와 한마음 체육대회

실행하지 않는다

격년제로 실행하던 교구찬양대회와 한마음 체육대회를 2025년에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7. 국내 기독교 선교 유적지 순례 실행

올해 각 교구별로 진행한 국내 기독교 선교 유적지 순례는 2025년에도 계속 실행합니다.

8. 바자는 대치 1동과 협력하여 실시

바자를 대치 1동과 협력하여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기회가 되고자 합니다.

9. 성례부, 예배위원회 산하로

2025년부터 성찬식을 준비하는 성례부를 예배위원회 산하로 변경하고 시무장으로 부인(시무권사)들로만 조직합니다. 권사회는 성례부를 조직하지 않습니다.

10. 감사부 신설

2025년부터 감사부를 신설하여 감사활동을 강화합니다.

연말연시 일정 안내

- | | |
|------------|--|
| 12. 4(수) | 정기당회 |
| 12. 8(주일) | 2025 섬김위원 임명
선교회 / 전도회 총회
교사 총회 |
| 12. 11(수) |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오후 8시) |
| 12. 14(토) | 스테반회 총회 |
| 12. 15(주일) | 권사회 총회
성탄축하 찬양예배(임마누엘) |
| 12. 22(주일) | 교구 총회
교육부서 성탄축하 행사 |
| 12. 24(화) | 성탄전야예배(오후 8시) |
| 12. 25(수) | 성탄새벽예배(호산나)
성탄감사예배(11시)(임마누엘)
(수요1, 2부 예배는 성탄예배로 대체) |
| 12월 중 | 찬양대 총회 |
| 12. 29(주) | 향존직 은퇴, 통독 시상
교회학교 졸업, 장한 어머니상
특별제직회(예·결산) |
| 12. 31(화) | 송년음악회 |
| 2025년 | |
| 1. 1(수) | 송구영신예배
(새벽기도회, 수요1, 2부 예배는 송구영신예배로 대체) |
| 1. 5(주) | 신년감사예배 및 성찬식
공동의회(예·결산) |

다음 주 2025 섬김위원 임명

다음 주 I·II·III부 예배 시 2025년 교회 섬김위원을 임명합니다.

2024년도 모든 섬김위원들은 2025년 1월 1일(수)자로 해당 부서 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락방 리더훈련 겨울방학

다락방 리더훈련이 12월 11일(수)부터 2025년 2월 말까지 겨울방학에 들어갑니다. 개강은 2025년 3월 5일(수)입니다.

70인전도대 겨울방학

70인전도대는 휴한기를 맞아 12월 15일(주일)부터 2025년 2월 말까지 방학을 가집니다. 개강은 2025년 3월 5일(수)입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 * 신한은행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 * 장학헌금 계좌 : 신한은행
100-037-522042
대한예장 서울교회 손달익

왕이신 우리 주님

마 2:1-12



손달익 위임목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시기는 가이 사 아구스도가 온 천하에 호적령을 선포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메시아 대망사상을 품고 있을 때 주님은 베들레헴, 약속된 장소를 통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도바울은 이에 대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갈 4:4)라고 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음을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시간을 말하는 헬라어가 대표적으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Kronos라는 단어와 Kairos라는 단어입니다. 전자가 일정하게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즉, 세월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결정적인 한 시기 즉, 특정한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역사의 무의미한 흐름의 시간을 의미 있는 특별한 시기가 되게 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일생을 기록하면서 매우 특별한 역사해석을 바탕으로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당하는 종으로 묘사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여성, 약한 자들,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신 인간애가 넘치는 사랑의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구약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1.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의 예수 탄생 기록의 특징은 예수님을 왕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 1:1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면서 다윗의 뒤를 이은 왕들의 족보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계시냐’고 질문했습니다. 헤롯은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는 말에 기겁하듯 놀랐습니다. 그는 왕권에 대하여 과도한 집착을 보이며 자기 권력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사람은 가차 없이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집단 학살까지 하는 광기를 보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을 때 주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네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시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왕은 왕이시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세속적 왕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세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왕은 백성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수탈하기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정의와 평화를 보장하며 나라와 백성의 미래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함은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지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2. 왕을 맞이하는 태도들

‘유대인의 새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은 단번에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만들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권력에 대한 도전과 위협이라고 생각했고, 백성들은 무슨 까닭인지 알지 못해 웅성거렸고,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은 왕의 비위를 맞추느라 민감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베들레헴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두 살 아래 사내아이를 모두 죽였고 그 자신도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한 채 여러고에서 아무도 애통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헤롯의 일탈과 광기는 메시아를 철저하게 정치 지도자로 오해하는 것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왕으로 설명하고 ‘평강의 왕’으로 말했습니다. 메시아 탄생 예언의 정수로 알려진 사 9:6에서는 그를 일컬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눅 2:14에서는 탄생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쟁취하고 군림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낮아짐과 자기희생을 통한 섬김으로 세상의 평화를 만드실 사랑의 왕이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막 10:43-44),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리더십의 원리입니다. 주님은 결코 썩고 부패한 세상 권력에 한 치의 관심도 흥미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쟁취하고 군림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낮아짐과 자기희생을 통한
섬김으로 세상의 평화를 만드실
사랑의 왕이십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한 종교인이면서도 종교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헤롯에게만 충성하였습니다. 반면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여호와 신앙에 대한 경험도 전무했던 동방의 이방인들은 자기 예수께 경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그들만이 진정한 성탄의 은총을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신앙인인 것처럼 위선을 일삼는 거짓 종교인들은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의 은총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여러 달을 순례하고 권력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 예배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자기 인생을 걸었던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 헌신하고 순종한 사람들

동방의 이방인들은 자기 예수를 경배하고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그들의 예물은 이 세상에 오신 왕에 대한 최선을 다한 예의였고 앞으로 전개될 메시아의 삶을 위해 너무나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란 자신의 인격과 정성을 담은 것이어야 하고 헌신자의 진정성이 수반되어야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런 진심 어린 헌신의 계절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별의 인도를 받고 왔다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오는 것도 순종이었고 가는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헌신과 순종 이 두 가지가 진정한 경배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담백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동방의 순례자들이 드린 경배를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은 그 경배가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물도 진심이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진심이었습니다. 참 신앙이었습니다. 이 성탄 계절에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심정으로

2교구 양춘경 은퇴장로님, 이인숙 은퇴권사님 가정에서 지난 11월 장학금을 목적으로 교회에 1억 원을 헌금으로 드렸고, 당회는 감사히 받으며 이를 「이인숙 장학금」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주 순례자 참조) 이에 순례자는 양춘경 은퇴장로님과 이인숙 은퇴권사님을 만나 교회에 장학금을 헌금하게 된 계기와 서울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과 서울교회의 젊은이들에 대한 바람을 들어보았습니다.

순례자 : 이번에 교회에 장학금을 헌금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이인숙 은퇴권사 : 저는 독립유공자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에서 우수 학생에게 지급하는 성적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고, 남편 양춘경 장로님 가정은 부친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삼남매를 키우시며 자녀들 공부시키기도 어려울 때 출석 교회의 한 장로님께서 주시는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을 이어나갔기에 그때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하여 우리 가정도 언젠가는 교회에 장학 재단을 설립해야 하겠다는 거룩한 꿈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2년에 이순례 은퇴권사님께서 장학금을 헌금하시는 것을 보고 내심 무척 부러웠는데 무슨 일이든지 때가 있는 것처럼 그동안 기도하며 계획했던 일을 하나님의 때가 되어 지난 11월 장학금을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부 교육을 수료하며

환영합니다!



남형우 성도 (청년부)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대치동에서 살면서 서울교회를 자주 보고 들으며 언젠가 방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조부모님의 반대가 심해서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는데, 성인이 되어 여자 친구의 인도로 서울교회를 알게 되었고, 이렇게 좋은 말씀과 가르침을 들으며 새가족

부 과정을 수료하게 되어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교회생활에 열심히 참여하며 신앙을 키워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교회가 대치동으로 이사 오고도 한참을 현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 은혜로 교회에 헌금을 하였었고, 고 이종윤 원로목사님께서 헌당을 하는데 우리 가정이 마지막 물을 주셨다고 하며 많이 기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양춘경 은퇴장로 : 저는 후에 제가 천국에 갔을 때 “너는 세상에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나는 과연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가정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무엇이랄도 하나님께 보답해야겠다고 늘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마침 최형열 장로님께서 장학금 헌금을 권면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이거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 교회에서 장학헌금 전용계좌를 만들었다고 하여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순례자 : 「이인숙 장학금」을 통해 학자금을 받고 자라날 젊은이, 혹은 서울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양춘경 은퇴장로 : 우리는 늘 꿈과 비전을 말하고 있지만 그 꿈과 비전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려면 우리 안에 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는 말씀처럼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당부합니다. 고 이종윤 원로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하셨던 ‘하나님 100%, 인간 100%’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에 부응하여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서울교회와 다음 세대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마 6:20)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는 심정으로 거액을 장학금으로 쾌척하신 양춘경 은퇴장로님, 이인숙 은퇴권사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러한 헌신이 교회 안에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인터뷰 · 정리 : 허숙 권사(편집부)

포인세티아 기증

교구위원회(위원장 : 노제현 장로)는 사명자 대회 일환으로 열린 '금난새 오케스트라 마을음악회' 장식과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포인세티아 120여 그루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섬기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권사 안수 임직 예식 참여하며, '개혁'의 가르침을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이민호 장로

지난 주일은 서울교회 설립 33주년을 감사하는 많은 일과 함께, 17대 장로, 16대 안수집사, 15대 권사로 총 28명의 향존직 일꾼 세우는 임직 예식이 있었으며, 우리 교회는 처음으로 모든 향존직 임직자에게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안수함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주의 일꾼 세우는 임직 예식을 거행한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안수의 의미와 여성안수에 관한 신학적 해석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통합)에서는 1994년 총회에서 결의되어 여성안수가 시작되었고, 총회 헌법 등에도 안수하며 임직 예식 시행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우리 교회는 향존직 임직 예식에서 여

성(권사)만 안수하지 않았으나, 이제야 시행되는 권사 안수에 참여하며, "서울교회는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계속 개혁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고 이종윤 원로목사님의 가르침이 다시 기억되는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총회)의 여성안수에 관한 논쟁에서, 고 이종윤 원로목사님께서 신학적 해석과 결론을 맺어 주셨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이 제도를 시행하지 못한 일들을 생각하면, 이종윤 목사님께서 참으로 많은 교회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기다리고, 이해시키며 목회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안수에 관한 명확한 신학적 해석과 결론을 갖고 계시지만, 서울교회에서 그 제도를 바로 시행하지 않고, 그 당시 당회 구성원의 결정을 존

중하고 기다리시며, 서울교회에 여성 장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강하신 줄로만 알았던 목사님의 또 다른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교회 당회는 권사 임직 예식에서 여성안수에 대해, 모든 시무장로가 자연스러운 예식 방법으로 인식하며, 고 이종윤 원로목사님의 신학적 가르침을 30년 만에 시행하는 권사 안수에 참여하며, "서울교회는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개혁하는 교회"라고 목사님께서 그토록 많이 말씀하신 '개혁'이라는 단어가 강한 완료형 아닌, 부드러운 진행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시무장로서의 언행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짐는 의미 있는 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①-⑧ : 17대 장로 · 16대 안수집사 · 15대 권사 임직식, ⑨-⑫ 교회 생일 축하 교회학교 연합 달란트 시장

31강 : 성례(2)

66문 : 성례가 무엇입니까?

답 :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례 또는 성사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한자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례(聖禮)는 거룩한 예식을, 성사(聖事)는 거룩한 일을 뜻하는데, 성례나 성사나 모두 영어단어 sacrament의 번역어입니다. 영어단어 sacrament는 라틴어 sacramentum에서 유래한 것으로, 어근인 sacro는 '제물을 바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사에서는 싸크라멘

툼이 성경에서 신비와 비밀을 의미하는 헬라어 명사 "뮈스테리온"의 라틴어 번역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신비와 비밀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황대우, "개신교의 두 성례와 천주교의 칠성사," 「개혁정론」, <http://reformedjr.com/board02/673>, [접속 2024. 2.28].

여기서 '구원의 신비와 비밀'이 성례의 핵심이라고 할 때, 모든 그리스도교 전통이 성례로 인정하는 성만찬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츰빙글리의 기념설, 칼뱅의 영적임재설, 가톨릭의 화체설은 각각 '구원의 신비와 비밀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지 구분하여 표현해 보는 것도 성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념설은 구원의 신비와 비밀을 '기억'하게 또는 '생각나게'하는 의식으로서의 성

례를, 영적임재설은 '경험'하게 하는 의식으로서의 성례를, 화체설은 '주입'하는 의식으로서의 성례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구분할 때, 매개체인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제의 역할이라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생겨납니다.

성례는 보이지 않는 구원의 신비와 비밀 곧 복음 약속을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복음 약속은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약속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와 성만찬과 같은 성례의 유익입니다.

67문 :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답 :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프로테스탄트 전통은 말씀과 성례를 강조합니다. 칼뱅에 의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참된 표지는 말씀과 성례였습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 최종판(1559)에서 "순수한 말씀사역과 순수한 형태의 성례전 거행, 이 두 가지 표지가 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간

주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해도 틀림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러한 칼뱅의 교회론과 성례론을 구원의 확신과 연결시킵니다. 67문에 대한 답을 구원의 확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례와 구원의 확신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성례로 확증하시기에, 성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례로 구원을 확증하신다'는 표

현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확신이라는 것이 확실한 믿음이라면, 확증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확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확신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증은 확신을 상쇄하고도 남을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성례를 자주 시행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8문 :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답 :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는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일곱 개로 말하기 때문입니

다. 종교개혁 전통에서 인정하는 성례와 로마 가톨릭 전통에서 인정하는 성례의 종류는 각각 두 개와 일곱 개입니다. 숫자상의 '차이' 만 큼이나 그 숫자상의 '차이를 만들어낸 기준,' 즉 어떤 것은 포함시키고 어떤 것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

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숫자의 차이를 만들어낸 기준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성례에 대한 정의의 차이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본질에 대한 이해와 사용방법에 있어서도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

개신교와 가톨릭의 성례에 관한 이해 가운데 가장 큰 차이는 구원과 연관성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례를 '구원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가시적 수단'이라고 가르쳐왔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징계는 '수찬 정지'였습니다. 구원을 은총이 주입되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이기에 중세 교황들은 '수찬 정지'를 무기로 황제와 힘겨루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사이해를 배경으로 카눗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스 7세는 황제 하인리히 4세와 밀라노의 주교를 임명하는 권한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교황이 황제에게 구원의 은총에서 끊어지도록 수찬 정지를 명하자, 황제는 이 징계를 면하려고 엄동설한에 맨발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 하였던 것이 카눗사의 굴욕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성사신학은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로병사를 포함한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모든 사건들을 성사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성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로

설명함으로써 구원과 연결시켰고, 성사에 참여해야만 구원의 은총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가톨릭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공식을 완성시켰습니다. 성사를 집례하는 사제의 역할이 예식을 이끌어가는 집례자로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하는 기도자의 역할이 아니라, 속된 것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역할 및 구원의 은총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일곱성사를 중심으로 하는 목회구조를 통해서 교회는 인간의 삶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